

2022. 12. 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1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2133-7640
도시공간기획팀장	오승제	2133-7609
담 당 자	김선규	2133-7631
담 당 자	김동희	2133-7724
누리집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main.do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19일부터 전시

- 한 달간 총 570개 작품 접수...당선작 '집으로 가는 길' 등 25개 수상작 선정
-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회 개최...시민들이 한강 노을을 재발견하는 기회 마련
- 우수 아이디어 실제 사업에 반영...한강변 여가를 즐기기 좋은 공간 확대해 나갈 것

“노을의 명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의 관계맺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론 사진보다 장소와 관련한 사연이 더 감동적이었고 사연은 잘 표현하지 못했으나 노을사진 한 폭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녹아있었다. 가슴에 오래 기억되고 새겨질 진한 노을 사진들을 선물한 참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 심사위원장 강병근(서울총괄건축가)

서울시는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11월 30일(수) 발표했다.

- 이번 공모전은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다채로운 한강 노을의 모습을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보기 위해 추진되었고, 노을 사진과 함께 촬영장소에 대한 사연과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제출받아 시민이 생각하는 다양한 노을명소를 발굴하고자 기획되었다.

- 공모기간 동안 총 570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시는 작품성, 명소 활용 가능성, 이야기 진정성, 공공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 2022년 10월 4일(화)부터 10월 31일(월)까지 약 4주간 한강 노을의 멋과 감성이 묻어난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었다.
 - 사진, 건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출품작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했으며 ▲노을명소에 대한 신선한 접근, ▲독특한 경험과 시각의 이야기 표현, ▲쉽터로서의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공모 수상작 확인 : <https://mediahub.seoul.go.kr/gongmo/2000299>)

- 대상은 신영섭님의 ‘집에 가는 길’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이유로 “기존 사진 명소의 통념을 벗어난 참신하고 개성적인 촬영장소 선정이 좋았고, 해가 넘어가는 순간의 빛이 조형물들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순간을 좋은 구도로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 최우수상은 총 4개 작품으로, 꽃과 노을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조화롭게 표현한 ‘유채꽃향기 바람에 날리고’, 한강의 교각을 프레임으로 활용한 ‘한강노을 상영관’, 엄마와 함께 바라본 잊지못할 노을의 추억을 표현한 ‘하늘의 선물’, 붉은 석양을 초록의 공원과 대비하여 극적 효과를 나타낸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을’이 선정되었으며,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며 장소 관련 사연도 진정성있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 이외에도 한강의 노을과 서울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20개 작품을 우수상(10개 작품) 및 장려상(10개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 시상은 대상 1명에게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4명), 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10명), 장려상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10명)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 시는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의 매력과 감성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사진전에는 수상작 25점과 함께 우수한 참가작들도 전시하며, 노을 촬영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전시한다.
 - 전시는 상설 전시(09:00~18:00)되며,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 공모를 통해 발굴된 장소와 우수한 명소 활용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한강변 노을명소 조성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시는 발굴된 장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공익성 등 명소 조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노을 감상을 주요 콘텐츠로 한 다양한 활동(사색, 조망, 명상, 소통, 놀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흥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다채로운 한강 노을명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라며, “석양이라는 매력적인 자원이 있지만 쉴 곳이 없어 외면받던 장소들을 찾아 그곳에 어울리는 콘텐츠와 감성적 요소 등을 더하여 보다 좋은 노을명소로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공모전 수상작 목록(25작품)

대상(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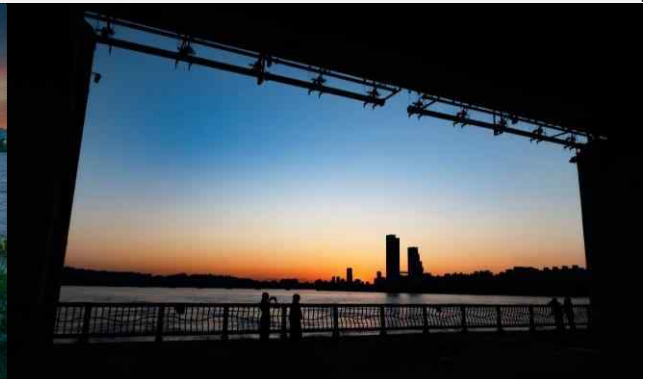


집에 가는 길(신영섭)

최우수상(4건)



유채꽃향기 바람에 날리고(서○미)



한강노을 상영관(유○렬)



하늘의 선물(윤○원)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을(박○원)

우수상(10건)



노을 속의 반포대교(박○갑)



忙中閑(나○주)



해질녘 붉은노을(유○욱)



노을진 한강(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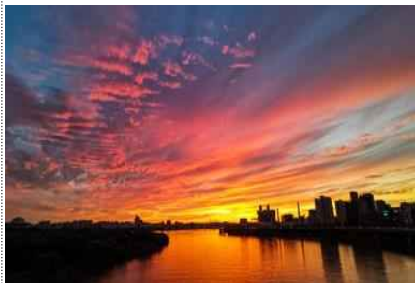
도란도란 우리들
이야기(정○선)



나를 멈추게 하는
순간(김○현)



노을이 비추는 풍경(김○철)



마이 행복(피○태)



서울함공원과 노을(박○현)



노을을 물결 삼아
가로지르는(우○빈)

장려상(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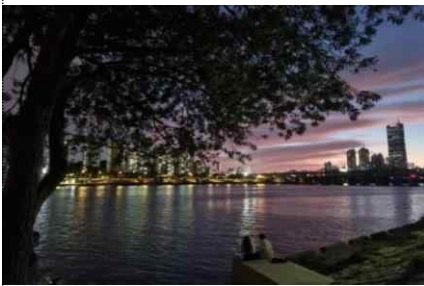
내 시선 안의 한강(김○완)



오렌지색으로 물들어 가는
우리(오○은)



용마산 위에서 본
서울(안○록)



노들섬의 연인들(윤○영)



한강 위 파노라마
극장(박○식)



노들섬의 황금 일몰(고○열)



펭귄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
감상을(김○훈)



일상 속 여유(최○준)



사랑은 노을을 타고(정○엽)



한강과 남산(최○욱)

[붙임 2] 공모전 포스터

서울특별시 동해매력 특별서울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한강 노을 재발견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공모전

Hangang River

감성도시 서울

10월 4일

10540

Show all comments (301)

2 HOURS AGO

공모내용: 나만 알고 있는 혹은 자랑하고 싶은 한강 일대의 매력적인 노을명소를 사진으로 제안

참모자격: 제한없음 (단, 개인 자격의 국내 거주 내·외국인에 한함)

접수기간: 2022년 10월 4일~10월 31일

신청방법: 내 손안에 서울(<https://mediahub.seoul.go.kr>)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greatsunset2022@gmail.com) 신청

결과발표: 2022년 11월 28일 예정

시상내역: 시상금 총 550만원(대상 100만원)

문의처: 공모전 사무국 02-2061-4146, greatsunset2022@gmail.com

제출물:

- 한강 노을 사진
 - 1인당 최대 3작품까지 제출 가능(단, 입상은 1인 1작품에 한함)
 - JPG파일 2~10MB 이하(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가능)
-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제공 서식 이용)
- 작품설명서
 - 1작품 1설명서
 - 촬영 장소, 촬영 동기, 장소 관련 사연, 명소 활용안 등 포함

제출방법: 모든 제출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응모자 이름.zip"으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